

경기불황에 자영업자들 주류값 인하 ‘고육지책’

고물가 장기화에 외식업체 침체
작년 전국 외식업체 폐업률 22%
소주 1천원·타임 세일 등 자구책
저가주류 마케팅으로 손님 유인

고물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에 외식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외식업 폐업률이 높아가는 등 영업 부진이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음식점 및 주점들이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주류할인’, ‘타임세일’ 등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찾은 광주 북구 한 대학가. 이곳에서는 방학을 맞아 ‘소주 1000원’, ‘소주·맥주 택1 무료’ 등 다양한 주류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방학 기간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대학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파격 할인’에 나선 것이다.

소주를 1000원에 제공하고 있는 한 고깃집 사장 김모(53)씨는 “예전에는 주류 3+1 행사를 진행했는데 지금은 소주를 1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를 연 지는 두달 정도 된 것 같다”며 “방학 기간에는 매출이 최소 30% 이상 줄어들어



광주 주요 상권으로 유명한 동구 동명동의 한 주점에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주류 할인을 제공하는 ‘해피 아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게다가 주변 가게들이 ‘소주 1000원’ 등 주류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니, 경쟁을 위해서라도 할인을 제공하게 된다. 대학가다 보니 고기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주류할인’ 외에는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주류를 할인하는 가장 큰 이

유는 ‘장사가안돼서’다. 다행히 이벤트의 효과는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다. 술값이 부담되는 단체 손님이나 학생들이 매장을 더 많이 찾기도 하고, 소주를 저렴하게 판매하니 손님들도 부담 없이 주류를 주문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주 주요 상권으로 유명한 동구 동명동 일대에서도 ‘주류할인’ 이벤트를 하는 주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호프집에서는 1인당 생맥주 2000cc를 마실 경우 2000cc를 무료로 더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제공받은 생맥주는 ‘보관도 가능’하다고 쓰여있다. 당일일에 제공받은 맥주를 다 마시지 못할 경우 해당 매장을 또 찾을 수 있어 고객과 주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다. 또 가격대가 높은 칵테일을 ‘2만원에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주점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한 주점은 손님 유입이 어려운 시간대에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주류 할인을 제공하는 ‘해피 아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벤트 시간대에 매장에 방문하면 소주와 맥주를 2000~3000원대에 제공한다.

사장 문명진(34)씨는 “날이 더운 여름

철에는 특히 손님들이 매장에 방문하는 시간이 늦어져 오후 7시 전까지는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른 시간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주류할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유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벤트를 진행한 지 4~5개월 정도 됐는데, 해당 시간대에 방문하는 손님이 40% 정도 증가한 것 같다. 주류할인 외에도 소소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매출 하락 등 영업부진 탓에 가게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폐업하는 식당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폐업 업체는 17만6258개로, 폐업률은 21.52%에 달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9만6530개)과 비교해 약 82.6% 증가한 수치다. 폐업률은 △2019년 13.87% △2020년 13.41% △2021년 14.73% △2022년 16.95%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 외식업체 폐업률은 21.68%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과 대구(21.71%) 다음으로 높았다. 오픈업의

조사는 당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년에 매출이 있던 외식업체가 1년간 매출이 없는 경우 폐업한 곳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업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역시 올 2분기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분기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75.60으로, 79.28이었던 1분기보다 3.68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1분기 반등했지만,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줄어든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점업’의 경기동향지수는 주요 업종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했다. 주요 업종별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를 보면 주점업의 올 2분기 경기동향지수는 70.93으로 중식 음식점업(70.74) 다음으로 낮았다. 고물가 현상 장기화로 인한 회식 부담, 택시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낮은 지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사진=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상생누리 누리집·소진공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 새출발자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해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

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로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인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소영 기자

제 1133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3	14	20	28	29	34	2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1억507만원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247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66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은행, 체코원전 화재 ‘무진기연’ 지원 모색

고병일 은행장, 조성은 회장과 면담 “금융지원 강화로 지역발전 마중물”

광주은행이 지역에 소재한 원자력발전설비 강소기업 ㈜무진기연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

1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최근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원전 발전 설비 업체 무진기연을 방문해 조성은 회장과 면담을 하고 금융지원을 골자로 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진기연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총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함에 따라 신규설비와 인력 확충 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광주은행은 무진기연이 원자력발전 설비 분야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4년간 지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고은행장은 이번 면담에서 무진기연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 참여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추가 수주, 또 미국 미주리대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 수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구체



고병일 광주은행장(오른쪽)이 원전 설비 강소기업 무진기연을 방문해 기업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적인 금융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무진기연은 1990년 설립된 무진기계에서 출발해 현재는 원자력 발전 설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 지역 소재 기업이다.

그간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연구개발로 지역을 넘어 국내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국내 원자력 기술 수출 사상 첫 유럽 진출 사례였던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조 사업’의 핵심 기기 설계와 제작 단계에 참여해 ‘K-원자력 유럽 수출에 숨은 주역’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지역 대표은행의 소명”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해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유탑그룹,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종합건설기업인 유탑그룹이 최근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며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전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전사업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유탑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유탑그룹이 신안군에 설치하게 될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개발 면적 61.26㎢로 설비 용량은 323MW, 사업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건설업을 넘어 신재생에너지사업까지 진출한 유탑그룹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신안군 해상에 풍향계측기를 설치해 경제성분석,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해상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외국 자본 유입으로 발전사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유탑그룹은 법인 자본금 200억 원을 납입하고 자기자본금

3000억원이라는 조달 요건을 충족했다.

올해 하반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9년 말 해상풍력단지가 착공된다. 준공은 2031년으로 2032년부터 상업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업 운전이 개시되면 연간 88만MW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4인 가족 기준 약 24만 가구, 약 100만명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를 통해 향후 20년간 안정적인 소득을 발생시키고 전남도 일대에 발전사업 생태계 구축과 신규 고용을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 기자